



## 사순절 묵상집 2015

### 보스톤 한인 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

2015년도 사순절 묵상집을 위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권두언

“진정으로 희망을 원한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게 희망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마야 안젤루)

마야 안젤루는 7살에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말을 한 후 얼마 안 돼서 가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병어리 아닌 병어리가 됩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것은 시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입을 굳게 닫았지만, 방에 혼자 앉아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진정 시를 좋아한다면, 입을 열고 시를 암송해야 한단다, 너의 목소리를 내라.”

그 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사순절은 묵묵히 침묵만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침묵과 더불어 떠오른 시를 아니 이야기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침묵의 열매가 각자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침묵을 통해 탄생된 이야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언제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탄생시키는 거름이 됩니다. 올해도 가슴에 탄생된 이야기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목상집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하신 홍보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길 목사



.....

재의 수요일/ 2월 18일

## 구원의 기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라” (에베소서 2:5)

갈보리 십자가에 면류관 쓰시고

못 박혀 흘리신 귀한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죄인 구하기 위하여

사십 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과 고난에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잇고 살아온 불충한 이 죄인에게

십자가 붙들고 가는

은총을 허락 하옵소서

이재환 집사

.....  
기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 영원한 첫 사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반세기전에 나는 팔팔하고 당당한 잘 나가는(?) 여대생이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 답답하고 우울했던 최악의 시기이기도 했다.

3학년 여름방학때 갑자기 강원도 입석으로 대학생 수련회에 따라간 이유는 조용히 자연 속에서 시원하게 며칠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예배와 기도, 친교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3일째 밤에도 어설피게 기도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는 혼자 슬며시 캄캄한 밖으로 나와 버렸다. 시키면 나무들이 장승처럼 서 있는데, 그냥 한 나무 밑에 기대어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나무 사이사이로 멀고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옛날 태고 적부터 시작된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같이, 인간사 속에 밀려오고 있는 고독과 적막함과 단절감이 나를 삼키는 것 같았다. 이 세상 어디라도, 땅속 깊은 곳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하늘 끝이라도 밀려올 숙명적인 고독이고 적막함이고 단절감이었다.

나는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계시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계시다면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야지.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그 분이 계시는데도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소름끼치는 고독과 적막함과 단절감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끔직한 후회를 영원히 하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이튿날 아침 산 위에 있는 작은 cabin 안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표로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손이 약하고 변화 많은 내 손을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기에... 신겁다. 정말 신겁다. 내가 철 들면서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인가? 손 한번 들은 것뿐, 나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혼자가 되자 조용한 cabin 마루 바닥에 얇전히 앉아 하나님을 불러 보기로 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니까? ...? 침묵...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 침묵... 답답하다. 질문의 방향을 돌렸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까? (나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나를 떠올려보았다. 부모,형제, 학교, 친구들, 칭찬들, 방향, 고민, 어제 밤의 그 무서운 고독과 적막함까지...)

얼마가 지났을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어렸을때 가장 싫어하던 더럽고, 냄새가 진동하는 여름 변소간이 보이고 있다. 그 똥물 속에서 바글거리는 수없이 많은 구데기들, 구물구물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놈들, 그러다가는 떨어지는 놈들, 똥통 벽에 붙어 열심히 올라가는 어떤 한 놈이 “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견딜 수 없어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평생에 단 한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래서 더럽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그 자체가 한 발에 문질러 죽어버릴 수 있는 구데기, 아무 가치없는 위선 덩어리고 거짓뿐인 더러운 죄인 (total depravity)이었다. 그런데 계속 정신없이 울고있는 내 등 뒤쪽으로 예수님이 (한번 죽임을 당하셨던, 그냥 그런줄 알아지는) 오셔서 “여지껏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하시며 똥부럽치는 나를 포근히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계셨다. 떠나시라고 한없이 부르짖었지만 나는 그 분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분임도 알고 있었다. 너무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이 사랑은 참으로 절대적이고 순수해서 영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나 일대일로 적어도 한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무게와 심각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또 그 죄인들이 그렇게도 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했던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행 4:12).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가장 쉬운 분이시고 가장 귀한 분이시다. 부르면 대답해 주시고, 햇빛보다, 비보다, 공기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나는 지난 성탄절에 교회 성경공부반들이 다 모여 있을때 한 젊은 분의 간증에 은혜를 받았다. 항상 인생에 대한 많은 의심과 질문들을 안고 살았는데 지난 2년동안 성경공부를 하면서 어느 틈에 의심과 질문들이 사라지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했노라고.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녀보지 아니한 사람이 교회를 비난한다면 그도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 한 가운데 가장 높이, 가장 선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우뚝 서 있다. 아무도 외면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

내가 지난 반세기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영원한 첫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사랑의 이야기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영원히 펼쳐질 것이다.

윤만강 권사

.....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내 평생 펼쳐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 유혹 저항 훈련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 (요한복음 15:10)

‘No man knows how bad he is till he has tried very hard to be good. A silly idea is current that good people do not know what temptation means. This is an obvious lie. Only those who try to resist temptation know how strong it is. After all, you find out the strength of the German army by fighting it, not by giving in. A man who gives in to temptation after five minutes simply does not know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an hour later.

That is why bad people, in one sense, know very little about badness. They have lived a sheltered life by always giving in. We never find out the strength of the evil impulse inside us until we try to fight it.’ (Excerpt from “Mere Christianity” by C.S. Lewis)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에 동참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 다짐하고 훈련해 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사순(四旬)을 뜻하는 숫자 40은 성경에 상당히 자주 언급된다.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계속되었으며,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였고, 엘리야 또한 40일간 금식하며 호렙산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고,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였으며,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다.

이를 통해, 성경이 ‘40’ 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고난, 시험, 혹은 환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함을 준비하며, C.S. Lewis의 권고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유혹에 저항할 때에만,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며 경험하셨던 유혹 즉,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멸시와 모욕을 피하고픈 유혹, 조금 더 쉽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죽음을 통해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회피하고픈 유혹 등..

그 유혹을 견디며, 저항하며, 결국에는 이겨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 언제나 존재하는 명예의 유혹, 물질적 부유함으로의 유혹, 성적 유혹,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유혹들에 저항하는 훈련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의 고뇌와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요 15장) 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쉽게 포기하고 무너져서, 안락한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고, 우리 안과 밖의 악함과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 사순절을 통해,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새로운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이원형 교우(청년 2부)

.....

기도: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 된 속삭임에 저항하고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 God's Ward

**"But strive first for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25-34)**

We unfortunately do not have the knowledge or the capacity to see the fourth dimension. But we do see the third dimension, and there is a lot more ways to see that you can ever imagine: upwards and downwards and inwards and outwards and onwards and backwards and left and right and... the list continues. So after all, we're not really "stuck," we have a lot of room to move around in. Some argue infinite room to move around in. That's not true: you can only go to some places if you follow certain rules.

And that's the exact definition of freedom: doing what ever you want as long as you're bounded by certain, life-saving rules. These rules can always be found in the Bible. Whether it be love (1 Corinthians 13:4-7), or wrongdoings (Galatians 6:1-6), God's Words continuously provides to us "Godwards."

And where is Godwards? We can't see it as we can't see the fourth dimension. But we can get hints towards it: the closest "ward" to "Godwards" is backwards. Sure, we can look around, appreciate the magnificent structures of trees and the awe-inspiring night sky, and find God in those ways, but in the moment of hardship and adversity, we all end up with tunnel vision; it's inevitable. The only way to continuously remember where God is, is to constantly look back (Proverbs 27:19). Hindsight may be the greatest sight God has given to us, because everyone has it, and with practice, we can all see God more clearly than in the present.

"Ward" has one last meaning, and it's the most important meaning. In the case of upwards and downwards, etc., "ward" means "way." God's way with things are hard to see for us little humans. But it is there. Answer this question: have you ever written an essay, and felt as if the essay was already written, and you're just transcribing it? For many, it's not an uncommon experience. That might be because those words were already planned, and the only thing we really do is choose how to say it.

That might as well be the case for our lives too, as in, we already have our life course planned out, but we can choose what adjectives or adverbs or transformative language we use to tell our story of our life. It's free will, in the exact definition of freedom. And this plan, whatever it is, is bound to get us somewhere good. God good. We need only to trust in Him, the perfect creator (1 Corinthians 2:9-10). But predestination or not, we can all faithfully agree to this: our God is real, He has His own way of doing things, He wants to draw us closer to Him, and He is all around us.

Sung Min Ahn (중고등부)

기도: Lord, your way is good, and always good. Amen.

#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14)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봄길’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lent’라고 하죠. Lent의 어원은 lengthening입니다. 곧 길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summer time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낮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사순절 기간에는 낮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lent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봄이 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봄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봄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lent 곧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절제와 구제와 기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봄길이 되지 않을까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 세상을 위한 따뜻한 봄길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중략)

2014년 발간된 사순절 묵상집 오늘의 글을 보면 정말로 다윗처럼 말씀대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소개해드리면 대 부호의 아들로 William Borden은 태어납니다. 어릴 때 세계 여행을 하면서 결단합니다. 예일대학을 다니면서 시작한 아침기도와 성경공부 모임은 1300명중 1000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킵니다. 좋은 직장에서 오는 모든 love call을 뒤로하고 신학교를 가고 중국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역을 시작한 지 넉 달도 안되어서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5살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기도응답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그의 묘비에 적어 놓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은 하나님의 종 여기에 잠들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잠시 후 부를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마지막 절 가사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마지막 소절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따라 사는 삶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반면 재능과 세상 지혜로 사는 삶은 순간에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순간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순간에 잇대어 살던 삶에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으로 옮겨 가십시오. 그 때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위해서도 봄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  
이영길 담임 목사  
<2014년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소유. 존재. 자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동인천역에 도착.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물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다. 인간극장 다큐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민들레 국수집” 이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간판 아래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손님의 등 뒤로 어느 특별한 눈빛과 마주쳤다. 길게 느껴진 짧은 몇 초가 지나고 서영남 수사님은 손을 들어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하셨다. 좁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준비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 누구도 눈치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한 섬세한 배려가 구석구석에서 보였다. 이렇게 근사하고 맛있을 수가! 수사님의 손맛이 들어간 음식을 VIP (이곳에서는 자주오시는 노숙자들과 극빈자들을 이렇게 부르며 맞이한다)들과 함께 먹고는 설거지를 도왔다. 자원 봉사자들, TV를 통해 익숙해진 그곳의 VIP멤버들과 일을 끝내고 한잔의 차를 마신 후 수사님과 함께 인천의 골목길을 걸었다. 다큐를 보며 떠올랐던 질문들을 했다. 내겐 기억같지만 느껴졌던 민들레 국수집 이야기. 수사님의 별명인 “과과 스머프” 같은 따뜻함과 그의 오랜 수도원 생활을 통한 깊은 영성은 그의 답변 하나하나 속에서 느껴졌다. 마지막 질문. “세상에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실천 하기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기가 쉽지요. 수사님께서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답하셨다. “쉬워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주위를 가리키시며,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근처에는 허름한 상점과 몇몇의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그 중의 한 분이 외치시듯 말씀하셨다. “어디 그게 쉽나요!” 아마도 수사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하셨나 보다. 모두 크게 웃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내겐 잠시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소유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긴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니.

주위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소유물 혹은 소유 가능성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은 공간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공간은 건물과 사람들을, 시간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있는 “나”를 포함하고 있었다. 소유물이나 시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님을 삶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때까지 이 말은 내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나의 의지적인 표현이었을 뿐, 어릴 적부터 주입된 가치관을 버리고 현실을 정직한 마음으로 마주할 때 얻게 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냉철한 눈으로 보면 소유물의 헛됨을 깨닫게 되어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게 되어버리듯 나라는 존재 또한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 결과는... 수사님의 손가락은 소유로부터, 그리고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 헤어짐의 시간이 왔다. 책을 한 권 주셨다. 표지 뒤에 짧게 적어주신 한마디.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하나의 삶의 비밀을 얻고 가는 길은 어두운 골목마저 환하게 느껴지게 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 자기를 낮춘다는 말.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민들레 국수집은 하루에 약 500여명의 굶주린 이들에게 식사, 잠시 쉬어갈 곳, 생필품 등을 나눠 주는 곳입니다. 방문 당시 저희의 마음을 찢었던 말씀. “밥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대접이지요. 배고픈 이들에게는 단순히 밥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각듯하게 사람 대접을 해야죠. 귀한 마음으로, 소중한 정성으로.

최정환 집사

기도: 주님, 제가 비워져 있는지, 낮추어져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매섭게 검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 1:10:100과 우리의 참여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하나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17)

지난 연말 우연히 주말 연속극 ‘미생’ 중 한 회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계약직 사원인 장그레가 본인이 기안한 사업계획을 사장과 임원들 앞에서 발표한 후 사장의 칭찬을 받으며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우리 회사니까요”라고 가슴 뭉클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도 이제 창립된 지 61년을 넘겼고, 그 긴 역사와 전통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인생도 60을 살게 되면 온갖 질병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물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긴 세월 속에서 몰아쳐 온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E.C.C 건국이라는, 이민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던 한편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종교다원화와 상대주의로 기독교의 구원론은 점차 입지를 잃어 가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계층의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사회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 개인주의적인간관계는 심각할 정도이고 따라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톤에는 한인이민 정체 혹은 역 이민과 함께 이 지역의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고급인력의 유입 및 연수생들의 발길도 지난 몇 년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함께 성장해야 한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 교인의 영적 무장을 위한 교육, 젊은 교인의 확보 및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 등을 추구하고, 외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전도 및 사회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구역을 위시한 여성교회, 남선교회, 소그룹 및 은사동우회 등이 있고, 이를 각 위원회에서 기획,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어 각기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된 공동체에 참여할 때에 이 양과 질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참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열명이 될 수도 백 명이 될 수도 있는 나비효과를 가져오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무관심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옛 선인의 말처럼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함께 사랑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 “우리”를 일구어 내기를 기도합니다.

권복태 장로

.....

기도 :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 사순절 기도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라... ” (창세기 3:19)

주님.. 매 순간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져만 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는 삶이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고자 다시금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  
 매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에도 바쁜 하나의 인간이지만, 사순절 참회의 기도를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려 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친히 지으신 자식들을 넓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참회와 절제, 그리고 구제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울부짖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말없이.. 한알의 밀알처럼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분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의 남겨진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일들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새긴 제의 수요일을 통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주일을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 앞에 모든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며,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학수 집사

.....

기도: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을 본받아 저희들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소서.

# 할미꽃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6)

말없이 꽃을 피우고  
말없이 떨어져 가는 꽃  
그 때 그 곳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말기고 있는  
한 떨기 할미꽃의 진정한 순종과 겸손  
영원히 멸망치 않을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그곳에 빛나고 있다.

55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수하고 계시던 낭곡(浪谷)의 포도 죽자가 있었는데 6.25 피난시절에 가족이 신세 진 허씨 아저씨가 그 포도 죽자에 감탄하면서 좋아 하기에 다행히 생각하고 기꺼이 선물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아저씨의 사무실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아버지가 선물한 낭곡의 포도가 그림만 곱게 오려져서 좋은 액자에 걸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연 질색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에게 한탄하시는 것을 듣고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포도 죽자의 그림의 빈 부분, 여백(餘白)의 부분이 오래된 그림이라 하얗지 못하고 어떻게 변색했으니 오려버리고 그림만을 금테 액자에 넣었겠지' 라고.

몇 십 년이 지난 작년에 시력을 잃은 왼쪽 눈을 수술하기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는 여유있던 시간에 동양 묵화를 시작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림과 여백의 놀라운 관계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백으로 인하여 그림이 힘있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보여주며, 그 깨끗한 여백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심한 말로 그림이 죽는 경우도 있고, 백지 화선지도 그림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이 휴지와 별 다를 바 없는 흰색 종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 아버지께서 '낭곡의 포도 그림의 여백의 색이 세월이 흘러 누렇게 되었다고 오려 잘라버리다니' 하시며 분해하시던 모습을 새삼스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낭곡(浪谷) 포도 죽자는 긴 화선지 위에 힘있고 굵은 가지와 몇 장의 잎과 포도송이 하나가 달려있고 전체의 삼분의 이 정도가 점 하나 없는 백지로 되어있지만 이 몇 장의 잎과 한 송이의 포도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자연의 생명을 보여주며 여백은 그림 자체를 받쳐주며 생명력을 강하게 짊어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십 가까운 생애에 한 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쓸모 없는 늙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살려두고 계실까? 뭐 때문에? 옳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작품인 인간 세상에도 공간 여백의 백지 부분이 필요하셨구나. 남겨둔 부분이 바로 나인가보다!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겸손히 말씀 위에 운유와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에 두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현장에 흠이 가지 않게 지켜야겠다.'

김현지 권사



기도: 주님 아무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노 여종을 주의 놀랍고 강한 귀한 빛의 반사체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 시련이 알려주는 믿음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1-13)

2014년 한 해에 우리가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지나갔었다. 1월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7월에 배 속의 아이 포함 세 식구가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를 다녀왔고, 9월에 출산을 하였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9월과 달리 10월부터는 시련이 다가왔다. 출산과정에서 진통제를 맞았던 부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원래 애 낳고 몇 주는 다 그래’ 라고 여겨왔지만 고통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다. 병원 응급실에도 가 보았지만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고 출산한 산모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이라 여겼었다. 또 며칠이 지나 응급실을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열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다양한 검사들이 시작됐다. 반나절이 지난 후 혈액, 신장, 폐에 감염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새로 태어난 딸과 함께 오붓한 가정을 기대한 우리의 꿈은 현실과 부딪쳐야 했다. 아내는 한동안 병원 입원을 통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고, 딸은 외갓집이 있는 메릴랜드로 가야만 했다. 10월과 11월 동안 치료를 한 덕분에 아내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고 12월이 되어서야 우리 세 식구는 다시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결혼 후 2,3년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나와 아내에게는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았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은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바울도 굶고, 쫓기고, 매 맞고, 도망 다녔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위안 아닌 위안이 된다. 이번 일로 우리 가정이 배운 것은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과 시련이 믿음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 일 후,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삼 조심스러워졌다. ‘아파 보았던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 는 말처럼 우리 가정도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쌓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문형근 집사

.....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껍질 깨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12: 24)**

최근 저에게 유난히 크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껍질을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의 한계는 무엇일까 하는 좌절감도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년 전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09년 함안에서 고려시대의 연꽃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침전(씨앗 담그기)을 통해 700 년이 넘는 긴 세월을 뛰어 넘어 3개의 연꽃 씨앗이 발아하였고, 7개의 꽃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안 박물관에 심어져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씨앗의 껍질을 깨지 못했다면, 그 생명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의 아들로써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고, 낙원에서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영원까지 영광된 보좌에 아버지와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락원의 순간, 인간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순결한 대속의 어린양이 되시려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서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능력과 자존심을 철저히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 성취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 놓으셨습니다.

며칠 전 식구들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집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죠. 감기로 지친 엄마를 아랑 곳 하지 않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응석을 부렸습니다. 몸이 지치다 보니 좋은 말로 타이를 수 있는 일이 짜증이 되고, 상처를 받은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이 되려, 아내를 자극하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장인 저로서는 엄마를 배려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실망스러웠고, 아프지만 아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객관적인 중재자로 나섰지만, 입장을 차를 좁히지 않는 모습에 누구보다 큰 언성으로 모두를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인 제가 나섰을 때, 모든 사태가 자연스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권위와 자만함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 한 켠에서 부아가 올라 왔습니다. 식구들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스스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더군요. 누구 하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더욱 분을 삭이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이 하니 식구들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기는 더더군다나 싫었습니다. 며칠을 가족 사이에서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말을 하지도,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니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일까 싶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재자를 자처했던 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아내와 아이, 모두를 위로하고 포용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서로가 자신만의 아집과 이기심이 누구보다 소중하다 보니 비롯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예배가 약속되어 있던 금요일이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식구들과도 테면테면 한 사이라, 구역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웃는 낯을 하는 것이 위선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구역장이라는 직책이 아니었다면 예배 참석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색하게 교회에 도착해서 구역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역 성도님들을 뵈고 예배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따위로 가족 모두가 상처 받고 있고, 이러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분명 교회 오기 전까지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 안의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에 나의 아집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려는 주님을 돌려보내 드릴 순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지금은 웃는 얼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안에 커다랗고 단단한 껍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집과 자존심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재생력도 뛰어난 껍질. 밀알이 죽어 싹을 틔우려면,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씨앗으로 오셔서 신의 능력과 자존심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첫 생명 열매의 교훈을 보여 주셨습니다. 친히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로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껍질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껍질을 벗겨낼 때 수반되는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주를 의지해 깨고, 나를 죽이는 고난에 동참하려 합니다.

장봉준 집사



기도: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의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 노인의 지혜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상 12:7)**

지난 주 인간 역사를 보는 눈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와 “그럴 수도 있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보는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의 삶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깊은 질문을 갖게 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노인의 지혜를 따랐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지혜는 헛것인가요? 르호보암이 노인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도리어 노인들의 체면을 살려준 것일까요? 노인의 지혜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노인들은 분명히 왕이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은 떠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전보다 더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노인의 지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그러나 노인들도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줄 압니다. 확신 없이 왕에게 감히 이런 충고를 하진 않았을 줄 압니다. 만일 왕이 노인들의 지혜를 따랐는데 그래도 나라가 갈라졌다면 아마 노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니다. 저는 노인들의 확신은 다음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섬김은 나라를 하나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왕의 섬김의 삶은 놀라운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짐의 아픔을 이기고도 남는 일들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섬김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던 분들입니다.

저는 노인들의 지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함을 물론 잘 아는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 않게 그들은 인간의 섬김도 위대한 일을 창조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감히 왕에게 섬김의 왕이 되라고 충고했을 리가 없습니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죄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섬김의 위대함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섬김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일 뿐더러 자신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르호보함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위가 섬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거꾸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평생 왕이 되려는 것을 꿈꿔왔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섬김을 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신하들을 왕처럼 섬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거부함으로 위대한 나라를 창조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의 죄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만일 그가 왕으로 신하들을 섬겼다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그의 죄가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노인의 지혜를 삶에서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기쁘게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영길 담임 목사  
<2014년 3월 16일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열심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부활절이 있는 4월이 되면 엇그제 같이 생각되는 보스턴에서의 생활이 벌써 11년째가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의 한국생활은 교회와는 무관한 회원으로 밤 늦게 야근하고 동료들과 술집을 전전하다가 한밤중에 귀가하여 다음날 빨개진 눈에 안약 넣고 출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이민은 어떤 부분에서는 직장에서 미생이 현실화 되기 전에 미리 도피한 것의 일환이었지만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에서 이민자의 생활은 매사가 무지하고 언어불통의 어려움 속에서 가까운 친척과의 결별로 미래의 불안감은 한층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막한 이민자의 생활 중에 집사람의 이끌림에 의해 뉴헤이븐 한인 장로교회에서 미국에서의 첫 예배를 갖게 됩니다. 그 날 전구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커다란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1~ 2절). 이 말씀이 막막하고 답답하던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미국으로의 이민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년후 보스턴으로 이사와서 전구 목사님의 소개로 보스턴 한인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요일 하루 교인으로 지내기를 3년여,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로 다니고 있던 차에 세례 받기를 권유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가가는 제법 성장을 하여 조금 무리하여 집을 사고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에 우리 가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3배가 넘는 대형 경쟁 가게가 개장을 합니다. 그것도 잘되는 가게를 갖고 있는 교민이 제2의 가게를 연 것이지요. 매상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가게를 차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매상의 감소에 반비례하여 날로 커가고 혼자서는 저를 주체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에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이 열여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늦게라도 저를 이곳 보스턴에 부르시고 보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뜻을 따라 항상 감사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노력합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 ~ 6절)

김진기 집사



기도: 이곳 보스턴에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광대한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34)

오래 전에 읽은 글중에서 기억에 새겨진 예화이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해 유대인을 색출하고 있었다. 항만이나 국경선을 통해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자 하는 독일계 유대인을 빠른 시간 내에 독일인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자는 하의를 탈의 시켜보면 할례 유무로 구별되나 여자의 경우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때 생각된 방법이 특정 알파벳을 발생시켜보면 독일인은 할수 있는데 독일계 유대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색출했다고 하면서 그 저자는 질문을 한다.

우리가 심판자 앞에 천국행을 선택 받기 위해 서 있을 때 보기만 하여도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첫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할 수 없다는것을’ 근거로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 사탄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두번째로 “저는 교회 직분자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생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미국에 이민가면 목사님과 장로님을 조심하라.” 그 만큼 직분을 가졌다는것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선교 단체가 이단 시비에 있다. 그러니 주님과 끊어진 자도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방언의 은사 받은 것으로도 아니다. 방언 구사자 중 50% 이상이 거짓 영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통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저주하는 내용을 방언으로 하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특히 사탄이 교회를 분열 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이 현금, 봉사란다. 많은 현금과 짧은 기간 동안 각종 봉사 모임에 참여하여 신임을 얻고 통찰할 수 있는 지위 (장로, 집사)에 오르면 그 때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전략이란단. 그러므로 이 또한 심판자 앞에서 나의 현금, 봉사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상 어떤 종교들과 비교해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계속 그 답을 찾기 위해 질문에 질문을 한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심판관의 두려움으로 비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봉사, 용서, 화해를 내세우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한다면 무엇일까? 사순절 기간동안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나, 주님의 증인이 되는 표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저에게는 구원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깊은 절망을 드리우며,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전신에 권사

.....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은자였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위로 증명 하기보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로마서 1:20)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려 보니다.

태초에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하늘과 땅과 시간을 만드시고,

바다와 나무와 풀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더듬어 보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내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아픈 마음과

물로 심판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저희 인간들의 악함도 생각해 보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싶어하심을 헤아려 보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말씀 “너는 오로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짐해 보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창조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형제 자매가

오늘 저와 같은 생각으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을 보며 달을 보고, 별을 헤아려 보니다.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과 흙내음을 상상해 보니다. 지저귀는 새 소리와 벌, 나비들도 그려보고, 바다 저편 몽실몽실 떠 있는 구름과 찬란한 햇빛을 마음에 품어 보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창조 계획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새삼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최정열 집사

.....

기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 Babysitting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마태복음13:8)

지난 2, 3년 동안 아내와 나는, 두 손녀들을 돌보고 있다. 펜실바니아를 떠나 딸네 집에 살면서 이제 막 4살된 Kaiya와 두 살 되어가는 Gabrielle을 맡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는 바빠서 잘 모르고 키웠으나 지금은 full time으로 즐기고 있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도 손녀딸들이 한없이 사랑스럽다. 특별히 저들이 잘 때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다. 저들이 같은 혈육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까지 하셨으니 우리도 그의 사랑스런 혈육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는 한 저들은 아무 걱정이나 두려울 것이 없다. 믿고 의지할 데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린아이들은 계속 자란다. 우리 아이들도 둘 다 키가 자라고 몸 무게도 묵직하다. 또 찬송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를 둘 다 잘 부른다. 식사시간에 돌아가며 기도하거나 감사찬송들을 하는데 큰애는 기도도 썩 잘한다. 둘째 아이도 매일 새로운 단어도 사용하여 간혹 놀라게 할 때도 있다. 필요한 말부터 먼저 배운다. ‘할머니 I’m hungry’, ‘very oui 아주 아프다’ 등. 무엇이든 잘 배우고 따라준다. 베드로후서3: 18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또 한가지는 저희 어린아이들은 꾸밈이나 이중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번은 바깥 사돈이 오셨는데 “Grandpa, your head has no hair, your stomach is too fatty.” 라고 말해서 좀 우습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가식이 없는 말은, 순진성, 진실성을 나타내준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hypocrisy)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마6: 1)” 하셨다. 마태복음13: 8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겸손은 성도들의 제일 큰 덕목이라고 한다.

빌립보서 2장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하시고, 겸손을 최고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손녀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하지 않는다. 항상 우리들을 믿고 배우고 따른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한 일을 칭찬 하실 때 정말로 겸손한 성도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러할 것이다. 사순절기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겠다.

윤원길 장로



기도: 저희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지만 겸손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저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겸손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새로운 나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차라리 내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의 생명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 같은 아들을 피조물들의 허물, 죄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직접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힘든 수모와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이를 꼭 다무시며 겨우겨우 이 죄인들의 악함과 대적을 참으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날 힘겹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아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토록 악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이 그냥 여기까지 하자. 난 6일이면 다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전능의 여호와다. 단 6일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난 이들을 포기하련다.”

내 자녀가 내 원수를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통의 역만 분의 일이라도 이유 없이 감당해야 한다면 난 그 고통을 감당하기 전에 기꺼이 내 아이를 들쳐 업고 어디론가 뛰었을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왜 이토록 귀하며 넘치도록 감사하냐면 인제 그만 하자고 두 주먹을 꼭 쥐고 온몸을 떠시며 눈을 감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짧은 33년을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이기지 못하는 죄악의 강함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사정하고 간절히 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작은 것에 화를 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자식을 기꺼이 내놓으신 이 크고 놀라운 천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재단의 제물이 되어 온몸의 피를 쏟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항상 힘쓰고 애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때 나도 넘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겪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품고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이어져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작은 수고와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이 땅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늘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광근 집사

.....

기도: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운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운데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습니까? 빛진 자 사랑 받은 자의 감격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 가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라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 24-26)

제사장들의 임무 중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중략)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모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여선교회 회원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선교회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선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략).

세 번째 제사장으로서 저는 우물가의 여인을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동네에 이르십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먼저 “네 남편을 불러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얼떨결에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쪽 집게처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그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든 그 이상 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제사장으로서 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들고 싶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후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Jan Richardson이라는 여성 영성가가 ‘In the Sanctuary of women’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911 사건 후 우리는 더 많은 예술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술가뿐 아니라 어떤 형태든 삶을 내 주는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축복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도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행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뿐 아니라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리암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론의 누이이자 모세의 누이이죠. 그는 여인으로서 춤과 노래로 곧 예술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곧 제사장의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술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여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곧 희망의 축복을 이들은 온 세상에 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사실 방금 언급한 여인들을 보면 모두 아픔의 여인들입니다. 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우물가의 여인, 미리암. 그러나 그들의 아픔이 바로 그들을 특유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갑니다. 아울러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은 이웃의 축복이 되곤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고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축복, 여러분이 주지 않으면 전혀 이 땅에서 사라지고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온 세계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접대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전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영길 담임 목사  
<2014년 3월 23일 (사순절 세계 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전쟁, 기근, 그리고 재해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 주님의 은혜와 회복하심이 있게 하소서. 아멘.

#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누가복음 4:8)

중세나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모든 권한을 가졌던 왕들이 그 권한을 쓰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콜로세움에서 로마 황제에게 등을 돌리며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던 주인공 글래디에이터를 죽이지 않았던 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황제의 자비에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십 일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라고 시험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되게 하여 잡으실 수 있었고, 천하 만국의 왕으로서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며, 하늘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보호하도록 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존귀함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나 어려움이나 배반이나 전쟁에서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며 도리어 백성을 섬기는, 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박종원/안원미 집사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해도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 신약시대에 빛을 발한 여성

”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1)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약혼을 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부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애매히 못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섰을 때까지의 마리아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심령 속에 켜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가닥 빛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망을 갖고 살았던 마리아였습니다. 끈질긴 인내로 부활한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누가 1:27-56, 요한 19:25-27).

사마리아, 수가 동리 한 여인: 남편을 다섯이나 낳았다는 여인은 전도에 지친 예수님께 물 한잔을 드림으로 예수께서 그녀의 비밀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너무 감격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덧입는 예수님의 산증인으로서 거듭나 초대 기독교의 여성교사로 거듭났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사도행전 16:10-15): 부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도하고자 이방 사도로 독립전도의 길을 떠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열고 바울 사도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개종케 하고 그녀는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아깝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뚫고 진전하여 빛 가운데 산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꾸지람을 하시고 답변하였습니다. 금식기도와 인내로서 견디어 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홀로 십자가에 생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최선경 권사

.....  
기도: 이 기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금식기도와 절제, 구제 그리고 이웃 사랑하게 도와주 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3월 11일

# 가나안 땅을 찾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수기 14:8-9)

생각이 많습니다.  
계획이 많습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기를 반복합니다.  
여쭙기를 반복합니다.

“이 곳이 제가 머무를 곳입니까?”  
“이 곳이 우리 아이들의 고향입니까?”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염탐꾼의 얕박한 계산을 했습니다.  
믿음보다 불신이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박상철 집사

.....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 지천명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2015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가족과 세계 특별한 해입니다.

1995년 미국에 왔으니, 미국생활 20년이 되는 해이고,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가 50, 즉 공자께서 말씀하신 지천명의 나이가 되는 해 입니다.해가 지나며 나이를 더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 올해는 특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천명 (知天命).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인데, 과연 주님께서 세계 두신 뜻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 영 자신이 없습디다. 그냥 그러저러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다 보니 어느새 50이라는 숫자가 채워졌군요.

해서, 올해 저의 새해 resolution은 “지천명”으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야겠다는 조급함이, 새해 resolution을 지천명으로 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할 때는 마음이 뿌듯했는데,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참 감감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이 다가 왔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왜 알 수 없는 걱정이 먼저 다가오는 걸까요? 아마도 제 마음 한 구석의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귀찮은 일이 많아짐을 의미하는데, 왜 굽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부반응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정말 엉뚱한(?) 것을 요구하시면 어찌지?’ 하는 제 자신의 아집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 마음속에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한 때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지천명의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한 어린애 같은 생각에 머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아직도 철이 들려면 멀었구나 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나이에 맞는 생각을 갖고 철이 좀 들게 해 달라는 기도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성완 장로

.....  
기도: 이 사순절 기간 저의 모든 생각과 고집 그리고 걱정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제 자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살아온 사순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늘 잊지 않고 있던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마냥 짝사랑만은 아니었음을 감사한다. 2001년 4월에서 2002년 6월까지 지낸 보스톤에서의 생활이 미국에서의 처음을 열었다.

(여수 애양원) 다리 수술 후 몸 전체를 깎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자동차에 누워서 보았던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봄꽃들, 1년 만에 걸어본 여수의 푸르른 앞바다. 일평생 보조기를 신었는데 이제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다니.. 손양원 목사님의 여수 애양원의 사랑이야기를 들었다. 이젠 그 사랑이 나의 다리를 고치었다.

(대덕연구단지)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40일 간의 새벽예배. 마지막 날의 너무 보기 좋았던 파란 하늘. 교회에서 갔던 기도원. 기도보다 더 맛있던 산채비빔밥.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추어 일찍 돌아오던 시골길.

(Boston) 머리에 kippa를 쓰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던 곳. 9.11사건으로 처음 인간적으로 보였던, 눈물을 흘리던 미국사람들. 동네에서 열린 기도회.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던 기억이다.

(Phoenix) 광야 같은 피닉스생활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아주 좋은 조건에서의 사순절 새벽예배. 2002년 7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2012년(12월)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 버렸다.

(Irvine) 이곳으로 이사 와서 프랑스 Tazai 마을에 가게 되었다. 단순한 곡조의 찬미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던 테제 성가. 늘 꿈에 그리던 그 곳을 내가 밟다니!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신뢰의 순례를 하는 젊은이들. 하루 3차례 공동기도를 한다. 말 대신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를 깊은 영성의 기쁨으로 채운다. 곳곳한 젊은이들에게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지나온 사순절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이명미 집사 (옛교우)

.....

기도: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 믿음의 기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 17)

지난 11월은 사랑하는 나의 시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신 달이면서 우리 가족들이 새로운 또 한 해를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만의 아픈 상처로 인하여 오랫동안 막혔던 교제들이 시어머님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진이셨던 시어머님께서는 일찍이 27세에 홀로되심으로 많은 마음 고생과 함께 세상의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것들을 감내하시며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어머님께서 95세의 연세에도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손자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머님께서 앞장서서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셨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고 소중했던 지난날의 아픔이 새삼 고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이별을 했을 때에도 “이미 너만 믿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떠나 보내셨던 나의 시어머님, 비록 그 약속을 지켜드리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음과 신뢰로 떠나 보낼 수 있으셨던 나의 시어머님의 믿음의 기도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이제 내 나이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때 우리 가족 모두가, 아니 부족한 내가 시어머님의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가정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에도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시어머님의 고통과 인내, 끝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경희 권사

.....  
기도: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새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 두 금송아지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열왕기상 11: 38)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허락했다간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쏠리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결국 단을 두 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두 단을 만드니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처음 시작은 자기의 정권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욕심이 끝내 단을 세우게 되고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가 정하고야 맙니다. 율법을 새로이 만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 (중략)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제 2의 다윗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을 하고 여로보암을 통하여 다윗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로보암은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의 왕조는 2대로 마칩니다. 아들은 암살을 당하고 그의 왕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북왕국의 미래도 풍전등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대에 금방 임하지 않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꼭 임하고야 맙니다.

여로보암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 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가 왕이 된 후 말씀을 지켰더라면 제 2의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북왕국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도록 명령했었다면 그의 집은 견고히 섰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왕국 이스라엘도 건재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 (중략)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제 2의 다윗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축복을 본인이 받을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함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라의 원수는 아니라도 우리 각자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왕국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2의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헤이븐 교회에 제직임직예배에 설교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지역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일찍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백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교회에 최근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다른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 이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내 공천을 다 마치면, 후보 장로님이 사는 마을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grocery도 가 보고 우체국도 가 보고 이웃들을 만나서 후보 장로님의 평판을 듣는다고 합니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장로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공천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기에 어디서나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마을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학교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도 작은 왕국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속한 작은 왕국에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제2의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여로보암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여로보암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다윗도 우리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다윗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이영길 목사  
<2014년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지역에 회개와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 구원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 20)

퇴근길마다 마주치는 한 노숙자가 있다. 유독 추운 날씨 때문이었는지 그 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지갑을 꺼내 현금을 내주었다. 그 노숙자는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며 나를 향해 미소를 띠었다. 나는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쁜 마음에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질 않아 내가 도와줬던 그 노숙자가 술 한 병을 한 손에 쥐고 가게 문을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내 마음이 이렇게가치 없이 쓰여졌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화가 났다.

이런 사건을 겪은 후에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혹시나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그 노숙자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안타깝고 슬퍼하시진 않을까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삶을 얻게 해주셨지만 우리 때때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휘말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다. 마치 내가 매일 지나치는 그 노숙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말이다.

우린 또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 감사함도 잠시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요구를 할 때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죄인인지 기억하고 이런 불품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급급했던 그 노숙자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동윤 교우

.....

기도: 하나님 항상 욕심과 불만이 가득 찬 나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새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나의 묵상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8)

## 묵상 I

주님!

절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남들이 봐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주님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찬송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고,

왜냐고요?

지난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영광스런 자리에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비굴함도 갖지 않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당연함인지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엔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지 않으나, 난 다른 이들 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나, 내게 명예도 없으나, 그들과 똑같은 자녀로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 묵상 II

나보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던 이들도 나와 똑같이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알았어요.

주님!

이젠 진짜 주님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늘 생각하고 사랑하려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했듯이 나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해 보려고요.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들도 내 사랑을 같은 눈으로 느끼고 주고 받을 수 있기를 이번 사순절 시간에 기도해 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젠 염려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더욱더 마음이 들떠움을 느끼며 우리 모두 사랑만 주고받게 하소서.

한정인 집사

.....

기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수요일/3월 18일

# 일년 한번 성경일독 하기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119: 103)

- <일> 일하며 성경 읽기 미루어 오다가
- <년> 년 말에 성경완독 목표를 두고서
- <한> 한 두 장씩 성경 말씀 이곳 저곳 읽어가며
- <번> 번번이 어려운 성경말씀 대할 때면
- <성> 성경이 나를 입을 여유를 갖게 하니
- <경> 경외의 심정으로 또다시 읽게 되고
- <일> 일일이 주석 책 열심히 찾아가며
- <독> 독후감 요약하던 <구약 꿰뚫기> 생각나네.
- <하>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시도다.
- <기> 기도와 감사의 성경완독 일 년이라.

\*<구약 꿰뚫기> 는 2014년 9월에 시작한 Boston Nehemiah Institute(BNI) 평신도 신학원 강의 중 한 과목 이름입니다.

김문소 장로

.....

기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 (시119: 105)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보다 더 단 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Psalm 73 reflection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19-21)**

Define the good and glorious life. The life you've always wanted.

<Do it here.>

Is your definition filled with pleasure, treasure, and rest?

Good- It should be. Otherwise, you'd be weird.

Look, we all want pleasure, we all want treasure, and we all want rest. But what kind of pleasure are we seeking? What is treasure anyway? What is real and meaningful rest?

Because we've all experienced laziness. We've all experienced days where all we do is sleep and while it may be AWESOME here and there when we get a day to do nothing, generally... if you have too many days like that in a row, you get bored.

Admit it.

There must be something better than just... not working all the time. Pleasures are generally temporary and fleeting. And treasures are gone once you spend them.

The Psalmist here, is trying to point us to a better definition, a DEEPER definition of pleasure, treasure, and rest. He claims that God Himself is the deeper definition of pleasure, treasure, and rest compared to the world's offerings.

In Matthew 6:19-21, Jesus lists out two different treasures. What are the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treasures that Jesus is talking about here?

"It would seem that Our Lord finds our desires not too strong, but too weak. We are half-hearted creatures, fooling about with drink and sex and ambition when infinite joy is offered us, like an ignorant child who wants to go on making mud pies in a slum because he cannot imagine what is meant by the offer of a holiday at the sea. We are far too easily pleased." (from C.S. Lewis's The Weight of Glory)

What do you think Mr. Lewis is saying here?

Psalm 73 says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Pleasure, treasure, and rest.

Redefine pleasure, treasure, and rest here in light of Scripture.

Daniel Kim JDSN

.....  
기도: 주님,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 없는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허락 하소서. 아멘.

# 선한 싸움을 위한 용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3)

제가 눈뜨고 잘 못보는 영화 장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포영화, 전쟁 영화,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시대를 그린 역사극입니다. 그런 제가 최근에 맞들인 전쟁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천오백만 관객수를 훌쩍 넘겨버린 ‘명량’입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처량한 역사에 가슴이 아팠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도 했고 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껴야 하는 슬픈 시대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며 현대에 태어나 살게 된 것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도 마음 졸이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끝이 조선군의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깨달아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지만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살기에 가난과 기근과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사단은 분명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승리’의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대사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때 저는 왜 열 두 제자가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며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땅히 그 용기를 발휘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정은아 집사



기도: 나의 삶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를 낼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나는 과연 자기 목숨,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있는가? 자신의 편안함, 재미, 멋, 그리고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지금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조금 더 재미있기 위해, 조금 더 멋있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나의 마음과 시간을 모두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문을 해 본다.

어릴 때 공터에서 친구들과 땅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기를 쓰고 몰두했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다.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땅따먹기 놀이를 할 때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 아니 목숨까지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까지 땅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해가 지게 할 수는 없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탄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서 여전히 죄성이 있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에 쉽게 빠진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 같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은 우리가 쉽게 자기 욕심과 영광을 위해 변질될 것을 아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 같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십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교만하기 쉬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함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일도 힘과 능력과 돈으로 멋있게 하자는 ‘영광의 메시아 (다윗 메시아)’의 목소리가 높은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십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의 메시아 (인자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은 교회에서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 메시아’가 아니라 ‘인자 메시아’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고 하셨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주님을 좇는 길을 가야 할 텐데, 지식을 늘이고 경험을 쌓아가며 도덕적인 성숙을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을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는 삶을 걸어 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 잡히셨던 새벽에 계집종의 질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남은 삶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갔다. 나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박신영 장로

.....  
기도: 너무도 쉽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도서 6:2)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며 살고,  
날마다 누군가의 바라는 기적이 나에게는 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처: 이하은)

.....

기도: 탈북자들과 북한 동포를 공활히 여기주셔서 은혜를 나누어주시고 속히 남북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 창밖의 남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9,10)

어느 가을날, 문득 내다본 창문 밖, 외딴 우물가에 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물 속을 잠시 들여다 보다가 무언가에 화가 난 듯 급히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 갑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있는 듯 돌이켜 우물로 가서는 다시 찬찬히 들여다 봅니다. 그러곤 다시 화난 듯 급히 발길을 되돌려 걸어가다 우뚝 멈춰 섭니다. 이 남자가 왜 그럴까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이란 시 입니다. 짧은 시인이 처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고민하며 우물에 비친 자신을 애증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마치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게 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마치 창 안팎에 있는 사람의 차이인 듯이, 우리에게도 이 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보는데도, 우물 밖 현실과 우물 속에 비친 나를 보는 것 같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1].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빠져있고, 또 사랑하지만 원치 않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때로 미워지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타인에게 상처 받고 다툼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상대방 사이의 창문을 열고, 각자의 두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봅시다. 우물 속에 비친 구름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러곤 서로에게 지구별에서의 그리운 추억이 되어 갑니다. 하늘에 돌아가 별 하나마다 붙여 헤게 될 아름다운 추억들로[2].

주[1]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4-6)

주[2]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9,10)

지 훈 집사



기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멘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베드로 전서 2:21)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선친이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 나온 내게 간병하셨던 어머니가 감격해 말씀하셨지요.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더구나.’ 병원 찬송 팀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타를 맨 젊은이들이 저녁이면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찬송가를 부르더랍니다. 기도와 위로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찬송과 기도와 위로의 말은 소리가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잔잔하고, 조용했을 텐데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진장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얼마간 돈을 건내셨답니다. 받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커피나 한잔씩 사서 마시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아닐 지라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실렸던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간증이요, 그것은 젊은이들의 선교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후렴)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병상을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지요. 내가 있어야 했는데, 어머니께서 대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매우 힘들었다 하셨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가깝지 않는 병원을 오고 가셨을 테니 말입니다. 연세드신 어머니께 송구하고, 환자였던 아버지께 죄송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찬송가 147장)

김화옥 집사



.....

기도: 주님, 제가 받아야 할 고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져야 할 짐,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때에 어디에 있었던가? 거기 제가 있었던가? 그저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멘.

# 만나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14)

사순절의 고난과 부활의 사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루 어디서나 잠시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만남을 갖습니다.

굳이 눈을 감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품속에 풀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분을 나누는 그 시간만은 어떠한 부담 없이 즐거움만 밀려 옵니다.

아름다운 시간들, 기쁨의 순간들.  
어떠한 언어로 표현될까요?

그저 마음의 평화와 고요가 보이지 않는 바다의 끝인가 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차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짧은 기도의 만남으로 기쁨이 삶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김영경 장로

.....  
기도: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 구분된 삶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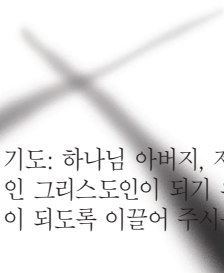
어느덧 태어난 지 8개월을 채워가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어다니진 못하지만, 혼자 앉아서 놀기 시작하고, 힘도 더 세지고,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무엇보다 안전과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전자파가 나오는 컴퓨터나 셀폰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만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현이 거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등등 하지 말라는 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이의 몸에 해롭다고 생각되면 바로 치우고 멀리 두려고 노력하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과연 내 자신은 영적으로 해로운 것로부터 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과 여러 메세지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구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행이 왜 이리 어려운지.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욕심을 부렸던 저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에서 멀리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저와 저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에게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 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기록하여지는 저와 저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심진희 교우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 나의 참 신이신 하나님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4:4)

우리 부부가 보스톤한인교회와 부부청년부에 출석한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수가 어느덧 셋이 되었고, 아내는 아니지만 저는 그동안 흰머리가 체법 눈에 띠게 늘었습니다. 보스톤과 우리교회 그리고 부부청년부는 이제 우리 부부와 아이들의 인생에 커다란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부부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찬양대에서 화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밥 먹고...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친구, 선후배가 있다는 것...이보다 큰 기쁨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몇 주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명한 한 철학교수가 고등학생들에게 전하는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이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류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 철학, 과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뇌리를 강하게 치며 오래동안 가슴에 맴도는 그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는 ‘종교’에 심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신을 판단하며, 늙어서 정 필요하면 그 때 신을 믿으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빈자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철학교수는 젊어서는 이성을 믿고, 늙어서 힘이 빠지거나 마음의 수양을 위해 필요할 때 ‘신’을 믿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만든, 필요할 때 써먹는 ‘신’을 믿지는 않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설령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습니다.

일찍 부르셔서 젊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혼자가 아니라 부부청년부 안에서,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많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훈 집사

.....

기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빛 바래지 않도록 나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섬김의 복을 주소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후서 12:15)

나처럼 작은 동네에서 small business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하루종일 불쾌함에 빠지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낫설고 말설은 타국땅에서 생존을 위해 시작한 사업에서 꺾어야하는 보기에도 어수룩한 동양인을 점잖게 대해줄 리 없는 손님들에게 어쩔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어서 불쾌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도 속임수와 억지에 대항하는 언쟁 때문에 하루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quarter동전 하나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도 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 할지라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남아있는 쓸쓸한 찌꺼기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경험하게 된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quarter 동전 한 개와 나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왜 즐겁지 않을까?

나의 사업장에 매일 찾아와 주는 고객들을 생각해본다. 혹시이 사업체가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진 자기 소유라고 단정하는, 불신앙의 죄를 안고있는, 위험한 생각들로 나는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업체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고백했던 때를 뒤돌아본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업체를 허락하셨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분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내 이웃들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만이 알고있는 나의 흉악한 죄와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며 기르시는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왜 알아차리지 못할까?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는다. ‘주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오늘도 제 마음을 괴롭게하는 자들에게 제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전 한 개 때문에 싸우는일이 없도록 하시고 20불 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는 언제 내려질 것인가?

박영일 장로 (옛교우)



기도: 주님, 주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저도 주님따라 자신을 죽이는데까지 낮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브라가 골짜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37-38)

이번 사순절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살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는 다윗 왕국의 여섯 번째 왕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과 함께 여호사밧 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니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왕인데 북왕국 왕인 아합의 요청에 응해서 이웃나라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 가담합니다. 그 전쟁에서 낭패를 당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남왕국으로 돌아 옵니다. 그런데 이 약해진 때를 이웃나라가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역대하 20:1-4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내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말씀 첫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중략)

찬송이 시작되자 군대가 북병이 되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적군들이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끼리 쳐 죽인다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라고 부릅니다. ‘브라가’ 는 ‘송축’ 이란 뜻입니다. 곧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전혀 싸움에 준비가 안 된 나라가 대승을 거둔 유명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냥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 홀로 브라가 골짜기의 이야기를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완성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장소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혀 싸움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온 인류를 브라가 골짜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에게 이제 최고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전혀 싸울 줄 모르는 군대가 대승을 거두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싸울 줄 모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만일 말을 타고 오신다면 잘 뛰는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 타시고 천천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뒤를 천천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브라가 골짜기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승리가 자꾸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힘을 잃어 가고 계십니까? 그 때가 바로 승리가 제일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새로운 힘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브라가 골짜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심을 통하여 당신의 브라가 골짜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완성해야 할 브라가 골짜기를 주셨으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 갑니다.

이영길 목사

<2014년 4월 13일 (종려,고난주일)> 설교문 중에서

# 희생양을 기억합시다

“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1:50)

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집단이 그들 안에 품고 있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거나 건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신에, 적당한 희생양을 골라 이 모든 문제의 잘못을 전가하고 자칫 서로에게 향할 수 있었던 폭력의 화살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을 처벌함과 함께 그간 쌓여왔던 집단 내의 폭력성과 분노를 일시적으로 소거하는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에서 술탄 희생양들이 있어 왔으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비슷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그 사회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양심을 무디게 하여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날카롭게 하는 이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의 희생에 애도하거나 고난에 동참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만 그 분노가 나에게도 향하게 되어 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희생양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처한 내부적 문제와 갈등이 불러온 미성숙한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유대 집권층이었던 산헤드린 의원들은 그들을 통치하던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의 반란에 가장 예민해 있었고, 예수의 대중적 영향력이 또 다른 민중봉기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 긴장은 고스란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압박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기득권을 누렸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종교적 바람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찾은 희생양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특별한 변명이나 반항 없이 기꺼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으로써 자신들의 두려움과 질투로부터 구원받으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십시오로 인류의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들의 추악한 이기심을 감추던 이 사회의 오래 묵은 악습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마지막이기를 바라시면서.

사순절은 그 희생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회에 살면서 감겨진 양심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희생양의 고난이 내게도 올까 염려하며 그가 혼자 온전히 짊어지고 떠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라셨듯이, 그의 희생으로 오랜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따금씩 개인의 이기심이나 집단의 오만함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땅의 무고한 희생양들을 기억합시다.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기심과 질투, 비난의 습관이 있다면 주 앞에 참회하십시오. 그렇게 희생양의 고난을 나누어 집시다. 십자가의 아픔을 기억합시다.

김수영 전도사

.....  
기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그 순전한 희생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 호수처럼, 깊은 우물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이런 좋은 글이 있더군요.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얇은지는 돌맹이 하나를 던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때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고 가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을 파도치게 하는 따뜻한 사랑,  
슬픔을 삭혀 주는 차분한 이해,  
분을 가라 앉히는 물기 어린 고운말,  
지나가는 인생길 향기롭게 만들며 주고 가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주고 가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마른 목 축여 주는 생수의 노래,  
방황하는 발걸음 비취 주는 진리의 불빛,  
떨리는 무릎 굳게 하는 활기 나는 기도,  
하늘 여정길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소금과 같은 것. 하지만 소금의 짠 맛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릇이 되는 것을 멈추고 호수가 되지 않으려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려 들석이지 않게, 출렁거려 끓어 오르지 않게, 안으로만 조용히 삭히며 혼자서 보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개성없이 동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그 다음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되고 깊은 우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던져도 자취도 없는 물 깊은 호수처럼, 아무리 휘저어도 뒤집혀지지 않는 샘 깊은 우물처럼... 담고, 품고, 꾸며 가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정대 집사

.....  
기도: 선행을 광고하는 바리새인보다 말없이 선행하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요일/ 4월 1일

## 멈추지 않는 주의 사랑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 34)

사랑을 한다는것,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 일상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선 늘 세상적 문제가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사랑을 강조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듯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인간으로 친히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  
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맘 속에만 간직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사랑의 마음조차 없는 건 아닌지...

윤주한 집사

.....  
기도: 주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 2-3)

나의 주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당신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삶의 순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주신 시간표에 정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감사 드리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악함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옳은 것을 옳게 보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게 보는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기다릴 때와 나서야 될 때를 주님께 늘 물어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말로 나의 게으름을 포장하지 않고 맡겨 주신 일을 열심과 담대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져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 받아 마땅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버려집니다. 상처를 치유 받아야 될 영혼들이 또 다른 상처를 떠안게 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땅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이 더욱 견고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이 고백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학주 교우 (청년 1부)

.....  
기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일에 나도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음을 주시옵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 서로 용납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멘.

# Labyrinth (미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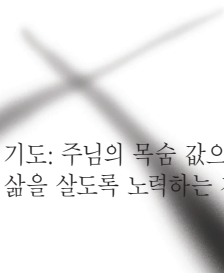
뉴욕 주에 있는 Stony Point 수양관에는 Labyrinth라는, 돌로 동그라미 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북대회 여선교회 수양회를 늘 그곳에서 하는 덕분에 방문하는 때면 그 래비린트를 경험합니다. 래비린트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으로 오는 영성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바깥쪽 입구에서 시작하여 여러 겹의 동그라미 길을 따라 가운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되는 듯하다 막히고 다른 길로 진로를 바꿔게 되는 반복되는 동그라미 길에서 믿음의 여정, 삶의 행로 등을 묵상하도록 하는 영적 실천의 방법입니다.

때면 이 길을 돌며 별다른 감흥이 없이 ‘아, 어지럽다’ 라고만 느꼈는데, 작년 수련회 때는 막 부활절을 지내고 모였기에 성금요일 음악예배 때 은혜롭게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곡이 저의 맘에서 아직 맴돌고 있던 때였습니다. Labyrinth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홀로 가신 고난의 여정 ‘Via Dolorosa’를 묵상하며, 이 길이 세상의 밖에서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돌길 이 주는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 몰려와 갈보리 고난의 주를 보았네, 그의 등은 채찍 맞아 찢기어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썼네, 멸시 조롱 당하며 그 길을 가는 어린양 보라,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고난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어린양, 우릴 사랑하사 주님께서 걸어 가신 거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갈보리로 ~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했네,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리 ~’

새 생명의 싹들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또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님을 상기해 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한나 권사



.....

기도: 주님의 목숨 값으로 얻은 우리의 새 생명, 헛되이 살지 않고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잊을 수 없는 상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요한복음 20:27)

얼마 전 기쁜 일을 맞이하신 몇 교우님들과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상처’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리저리한 다른 깊이의 상처들을 겪었다는 말들을 나누었고, 이에 모두들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때론 어떤 사람들에게겐 아무리 지우려 해도, 또,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에게겐 쉽게 지워 버릴 수 없는 상처들이 깊이 묻혀져 있다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깊은 상처를 안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론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한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 아픔과 좌절을 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처하여 받으신 주님의 상처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상처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상처들 안에서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상처...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상처를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들이 때론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 아파하며 고통 받을 바로 그 때, 자신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자신의 상처 그대로를 우리에게 내어 보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 어느해보다 깊은 주님의 상처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상처 난 우리들 모두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처 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안에 많은 이들의 상처가 스며들어, 주님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고, 위로 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윤경문 목사

.....

기도: 주님, 주님의 상처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 이스라엘의 부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역대하 23:3-4)

사실 여호야다의 외침은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왕은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아마도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카리스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태어나길 놀라운 카리스마를 안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 여호야다의 카리스마는 좀 다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약속을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6년간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 다.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의 카리스마가 된 것입니다. 그가 외쳤을 때 한 나라가 부활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근접할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우리가 근접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도 오래 믿음으로 우리도 카리스마의 사람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저는 확신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믿은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를 주님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올해(2014) 저희 교회 표어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보다 큰 일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부활 후 제자들은 당신 보다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카리스마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2세기 중반, 로마제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온 나라의 신자들은 투옥 고문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집사였던 상투스도 체포되어 그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당했지만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관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짧은 대답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말문이 막히거나 자신의 신앙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후 로마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보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외침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을 향하여 카리스마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외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영길 목사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 설교문 중에서>

.....

기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되, 특별히 회교권 국가에도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  
\* 2016년도 사순절 묵상집에 원고를 신기 원하시는 분은 kcblent@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홍보위원회